



1. 사업 보고서

(2012년도)

가. 사업개황

2012년도는 우리 농협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급변한 한 해였으며, 특히 유럽의 재정위기 등 글로벌 금융위기와 함께 세계곡물가격의 급등으로 인한 사료가격의 인상 등으로 인하여 농축산업의 모든 부문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며, 농가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된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농협의 임직원 모두는 위기극복을 위한 특단의 노력으로 정도 경영 및 내실경영을 통한 자산건전성 제고와 책임경영체제 구축에 모든 역량을 결집한 한 해였으며, 아울러 금융시장의 생존경쟁이 격화된 가운데 상호금융의 경쟁력확보를 위하여 금리리스크 관리체제를 강화하는 등 우리농협의 건전경영 기반확충과 함께 조합원의 소득증대 및 실익사업 확대추진을 위해 총력을 경주한 결과, 2012년도 부문별 사업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지원사업부문>

교육지원사업으로 조합원에 대한 영농자재지원비(비료, 농약등)등으로 2억52백만원, 영농자재 교환권지급 1억4백만원을 지원하여 조합원의 영농비 절감을 위해 노력함은 물론 조합원자녀 장학금 23백만원(55명)을 지원하여 조합원의 교육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리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친환경 쌀 생산단지 지원 1억9백만원(시·군지원비 포함) 및 조사료 생산 사업단을 운영하는 등 농업인 조합원의 소득증대와 함께 우수 농축산물 생산을 위한 기반조성에도 그 일익을 담당 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교육의 실시와 함께 친환경농산물 생산의 중요성과 농협 전이용사업에 대한 이해도 증진과 함께 여성조직단체의 활성화에 주력 하였으며, 1사1촌 자매결연기업체와 마을간의 교류를 확대 추진하는 등 도·농간의 활발한 교류활동을 전개하여 지역의 농특산물 판매와 농촌일손돕기, 상호방문 등의 성과를 거양하여 농업·농촌의 활력화에 주력한 한 해였습니다.

<신용사업부문>

유럽의 재정위기 등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금융환경의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 보다 심화된 지난 해는 전 금융기관 모두가 자기자본(BIS)비율 방어와 자산건전성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었으며, 우리농협 또한 상호금융예수금 증대를 위해 전사적인 노력을 경주한 결과 예수금 923억원을 달성하여 전년대비 92억원(성장율11.1%)이 성장(울산농협 전체 1위)된 한 해였으며, 상호금융대출금 또한 621억원을 달성하여 예대비율 67.3%를 달성하여 자금운용면에서도 양호한 한 해였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지난해는 약300억원(정기예치금)의 여유자금을 보유한 튼튼한 복지농협으로써의 확고한 기반을 구축한 한 해였습니다. 아울러 12년 연말 고객만족 서비스 평가에서 울산농협 중에(본·지점 85개 사무소 중 1위) 최우수사무소로 선정되는 영광을 차지하였으며, 이는 임직원 모두가 특단의 노력을 경주한 결과이기도 합니다만, 무엇보다 농업인 조합원과 지역주민 모두가 우리농협사업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성원해 주신 결과라 하겠습니다.

<보험사업부문>

보험사업의 확대추진과 수익창출의 다변화를 통한 사업별 조수익 확대를 위하여 보험사업을 총력 추진한 결과 보험료 20억70백만원(성장율23.3%)을 달성하여 농촌지역에서의 농협보험에 대한 저변확대로 보험사업의 확고한 기반을 구축한 한 해였으며, 특히 농업인안전공제 부분은 농업인 조합원이 농작업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서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료 중 교육지원사업비를 일부(국고및지방비 2천9백7만원,자부담 1인 1만원) 지원하여 가입을 권장하는 등 농협 보험사업의 확대를 위하여 한층 노력한 한 해였습니다.

<판매사업부문>

농산물의 수입개방 확대로 농업인조합원의 어려움이 가중된 가운데 산물수매의 수매가를 일부 지원(출하량 16,083가마 가마당3천원)함은 물론(총액 4천5백만원) 농산물의 공동출하 확대 추진과 거래처 신규발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농축산물판매사업 52억92백만원(성장율 5.9%)의 실적을 달성 하였으며, 기능성 쌀인 하이아미의 학교급식 추진 등 쌀 판매사업의 확대추진과 함께 관내에서 생산된 파프리카와 부추 등의 계통출하에 주력하였으며, 아울러 물량 또한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우리 농산물 판매사업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 한 해였다고 하겠습니다.

<구매사업부문>

영농자재의 주문 배달체계 정착과 함께 적기공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구매사업 실적 21억30백만원으로 영농자재공급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하나로마트사업 또한 이용고배당(조합원 이용장려금 2%, 일반고객 이용장려금 1%)을 실시하여 마트사업의 활성화에 총력을 경주한 결과 8억66백만원의 실적을 거양하여 조합원과 지역주민의 생활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경제사업의 총사업량 83억31백만원의 괄목할 성장을 이룩한 것은 오직 조합원님의 적극적인 성원과 함께 농협사업의 전이용에 따른 쾌거라 하겠습니다.

<경영관리부문>

우리 농업·농촌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의 급변으로 인한 농산물의 수입개방확대와 각종 원자재가의 인상에 따른 농업생산비의 증가 등으로 농업인의 어려움이 한층 심화되고 있는 이때, 우리농협에서도 농업인조합원의 실익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조합원의 기대에 충분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농협 또한 무한경쟁시대의 생존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모든 조직역량을 총동원한 경영혁신과 함께 책임경영체제를 확고히 함으로써 2012년도는 유럽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고조된 가운데 우리농협은 금융감독원기준의 각종 충당금을 100%이상(적립금15억37백만원 적립율 222%)적립 한 후 당기순이익 7억41백만원 목표대비 150.3%를 달성하여 건전결산과 함께 총자산 1,110억원(성장율11.6%)으로 확고한 자립경영기반을 구축한 한해였으며, 아울러 조합원의 출자배당 2억79백만원(5.83%) 및 이용고배당 1억45백만원(준조합원 55백만원),사업준비금 1억88백만원등 조합원에 대한 지분배당 총계 5억57백만원(배당율 11.6%)(준조합원 배당포함 6억12백만원)을 실현하게 되어 조합원의 농협사업 전이용 유도과 주인의식 고취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조합원의 실익사업확대에 더욱 매진하여 농업인조합원과 농업·농촌의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복지농협으로의 성장발전을 위해 임직원 모두 각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부속명세서